

## 6년 동안 매일 친구 업고 학교 다닌 소년



중국 쓰촨성 메이산시 칭선현의 한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난 쉬빈양과 장쩌는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붙어다니는 단짝이다. 몸이 불편한 장쩌에게 쉬빈양은 살아있는 지팡이나 다름없다.

장쩌는 4살 때 희귀 근육질환인 중증근무력증을 진단받았다. 장쩌는 이 질환으로 다리 근육 전체가 통제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고 혼자서는 걷지도 못했다.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학교도 다닐 수 없었는데 그때 쉬빈양이 나타났다.

1학년 때 장쩌를 처음 만난 쉬빈양은 자발적으로 친구를 돕겠다고 나섰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6년간 매일같이 장쩌의 등하교를 도왔다. 쉬빈양은 교실을 옮길 때도 점심을 먹을 때도 화장실에 갈 때도 장쩌를 부축하거나 둘러업고 다녔다. 덕분에 장쩌는 초등학교 졸업반까지 무사히 진급할 수 있었다. 쉬빈양은 현 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난 몸무게가 40kg이 넘는다. 장쩌는 25kg밖에 안 나가서 업는 게 힘들지 않다.” 고 밝혔다. 장쩌는 “쉬빈양은 가장 친한 친구다. 매일 쉬빈양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논다. 매일 나를 돌봐주는 친구에게 고맙다.” 고 말했다.

두 소년을 가르치는 한 교사는 “처음 3년은 다른 친구도 함께 장쩌를 도왔다. 그러나 장쩌를 돕느라 놀 시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돕기를 포기했다.” 고 설명했다. 그러나 쉬빈양은 단 한 번의 불평도 없이 6년간 장쩌를 업고 다녔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쉬빈양의 선행은 쉬빈양의 어머니조차 한동안 알지 못했다. 쉬빈양의 모친은 조용한 성격의 아들이 가족들에게 장쩌를 업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으며, 우연히 다른 학생들에게 들어 알게 되었다고 전했다. 쉬빈양은 쓰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며 “앞으로도 계속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 동성애 아들 부부의 대리모로 손녀 본 여성

동성애자 아들을 위해 미국의 60대 엄마가 대리모를 자처하고 나서 마침내 아들의 딸을 낳았다.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 사는 세실 엘레지는 공립학교 교사인 아들 매튜(왼쪽)와 그의 동성애자 남편인 미용사 엘리엇 도허티(오른쪽)가 아이를 갖고 싶다고 말하자 흔쾌히 동의해 인공수정란을 자신의 자궁에 착상해 지난 주 손녀 우마 루이즈를 출산하기에 이르렀다.



매튜가 정자를 제공하고 도허티의 누이 레아가 난자를 기증해 체외수정(IVF) 시술을 했다. 임신이 순탄하게 이뤄졌다. 수정란이 착상되고 일주일도 안돼 아들 내외가 사온 임신 테스트기로 처음 세실이 검사 결과를 확인했을 때는 음성이었었는데 아들이 세실을 위로할 걸 들었을 때 아들은 테스트기의 두 번째 선이 핑크빛이 돼 임신이 된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기뻐했다.

그러나 보수적인 네브래스카주에선 성적 소수자(LGBT) 가정에 대한 차별 대우를 각오해야 했다. 동성애자 결혼이 2015년에야 합법화 됐고 2017년까지도 동성애자 부모의 양육을 금지하는 법이 유지되고 있었다. 보험회사에서도 보험금 지급은 자신의 아기를 낳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며 버텼다. 우마의 출생 기록부에는 아들 이름만 적혔고, 도허티의 이름은 올라가지 못했다.

매튜는 “그런 일이야 우리를 가로막는 걸림돌 가운데 아주 작은 미세한 예에 불과하다.” 고 말했다. 그는 4년 전 동성애 결혼을 하겠다고 그가 근무하던 학교에 알렸다가 해고당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다. 당시 그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온라인 청원에 10만 2,995명이 참여했다. 매튜는 “혼자 끄공 앓아선 안된다는 것을 배웠다.” 며 자신의 가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들에 대해서도 커뮤니티와 지지자들의 응원과 함께 하며 싸우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결국 우리는 가정을 이뤘고, 친구가 됐다. 우리를 지지하는 든든한 커뮤니티가 있다.” 고 덧붙혔다.

세실은 아기와 자신 모두 잘해내고 있다며 “이 어린 소녀가 그토록 많은 응원을 등에 업고 있으니 사랑스러운 가정 안에서 잘 성장할 것이다. 그게 내가 바라는 바” 라고 말했다.

## 단 한 명뿐인 여객기 승객

커다란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이 나 혼자뿐이라면 어떤 기분 이 들까?



지난달 16일 리투아니아 출신의 스커만타스 스트리마이트스(사진)는 188명이 탑승하는 여객기의 단 한 명뿐인 승객이 돼 여행을 했다. 당연히 퍼스트 클래스 승객보다 더 특별한 서비스를 누리는 행운도 그의 몫이었다. 그는 스키여행을 위해 리투아니아의 수도 빌뉴스에서 이탈리아 베르가모로 가는 길이었다.

이날 총 188명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보잉 737-800에 오른 그의 눈 앞에 펼쳐진 기내는 놀라움 그 자체였다. 자신을 제외하고 단 한 명의 승객도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여객기에는 기장, 부기장의 조종사와 5명의 승무원이 탑승해 특별한 단 한 명의 승객을 위한 서비스는 그대로였다.

스트리마이트스는 “두 시간 이상의 비행 동안 기내 서비스를 홀로 받은 것은 일생의 단 한 번뿐인 경험이었다.” 며 “정말 놀랍고 재미있는 비행이었다.” 며 기뻐했다.

그렇다면 왜 이 여객기에는 승객이 단 한 명뿐이었을까?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여객기는 리투아니아의 노바투라스 여행사가 이탈리아에서 귀국하는 단체 여행객을 위해 전세를 냈다. 그러나 빈 여객기를 피하기 위해 편도 티켓을 팔았는데 유일하게 스트리마이트스만 구매한 것.

한 항공 관계자는 “이번처럼 승객이 단 한 명만 탑승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간혹 발생하는 사례” 라면서 “홀로 탑승한 승객으로서는 정말 행운의 여행인 셈” 이라고 전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한 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요일 오전10시30분  
매주 금요일 오전10시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